

쌍치면 종합정비사업 준공식

황숙주 순창군수 등 주민 150여명 참석

순창군은 지난 25일 쌍치면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쌍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순창군의회 의원과 사회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준공식은 식전행사와 내·외빈 소개,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쌍치면 흙사랑 풍물패의 풍물놀이가 펼쳐져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많은 박수를 받았고, 청정 쌍치면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역량과 뜻을 모아 건립한 '쌍치

면 청정 현장비'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이번에 준공한 '쌍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소재지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2년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여억 원이 투자됐다.

2013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6년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3년여의 공사를 거쳐 이날 뜻깊은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에 완공된 시설로는 연면적 747㎡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커뮤니티센터와 22면을 갖춰 주차장, 게이트볼장과 경운동로 사용이 가능

한 2,381㎡ 면적의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됐다. 여기에 간판과 벽면 정비 15곳, 460m의 도로포장 등이 이뤄졌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축사에서 "이번에 조성된 시설들은 농식품부 주민주도형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로 사업이 잘 추진된 거 같다"면서 "무엇보다 소재지 가로환경이 정말 깨끗해져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차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소재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며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쌍치면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쌍치면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축사에서 "이번에 조성된 시설들은 농식품부 주민주도형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로 사업이 잘 추진된 거 같다"면서 "무엇보다 소재지 가로환경이 정말 깨끗해져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차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소재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며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쌍치면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쌍치면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노암산업단지에 '행복주택' 건립

2020년부터 사업 추진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하반기 행복주택사업 대상지로 노암산업단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노암 산업단지는 어현, 노암 1, 2, 3 단지 등 총 4개의 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성이 좋아 현재 50여개의 기업이 입주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근로자를 위

한 기술수가 부족해 큰 불편을 겪는 등 주택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남원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LH전북지역본부와 손잡고 노암산업단지내 지원시설 부지(3,752㎡)에 120세대(47㎡이하)규모로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공모한 결과 이번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남원시와 LH가 전세사업비의 70%(국비 30% 주택기금 40%)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LH(20%)와 남원

시(10%)가 부담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남원시는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행복주택 설계 시 근로자를 위한 숙소와 운동시설 등 각종 복지 편의시설도 배치, 복합 주거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원주 시장은 "행복주택 건립에 따라 향후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장기적으로 개선되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하반기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및 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수시 점검

임실군이 속도감 있는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제고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내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김형우 부군수 주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4분기 소비·투자 집행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대책보고회는 부서장이 실적부진 원인 및 대책을 보고하고, 향후계획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집행률이 낮은 주요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 등 시설비 집행을 저조로 분석했다.

군은 집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특히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및 집행률 60% 이하의 사업은 부서장을 최종 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는 등 하반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서민경제 체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를 서두르고, 긴급입찰을 통한 조기사업자 선정 및 선금지급을 비롯한 공정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읍면 재배정 예산에 대한 조속 배정, 집행가능한 보상건의의 집중 협의 등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우 부군수는 "신속한 재정집행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강소성 민덕고등학교 학생 40여명이 훈몽재를 방문해 유학과 한국의 예절을 공부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을 진행했다고

순창 훈몽재서 유학의 진수 배워요

중국 강소성 민덕고등학교 학생 40여명 한국문화 체험

순창 훈몽재에 중국 학생들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중국 대륙에 유학의 진수를 전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강소성 민덕고등학교 학생 40여명이 훈몽재를 방문해 유학과 한국의 예절을 공부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민덕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심천대 등 중국 유수의 대학생 40여명이 훈몽재를 방문한 뒤 연이은 방문으로 중국에서 훈몽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민덕고등학교 학생들은 한국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훈몽재에서는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고등학생임을 감안해 어린 학생들이 유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훈몽재 김중호 산장이 직접 아이들에게 유학을 지도했고 인사예절 등 중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예절을 교육시켰다.

황숙주 군수는 "최근 유학을 공부하기 위한 중국 학생들의 훈몽재 방문이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학생들은 물론 국내 대학생과 일반인들도 정통 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훈몽재는 조선 유학의 자랑이라 김인후 선생이 강화하던 곳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던 건물을 지난 2009년 순창군이 증건해 정통유학의 배움터로 자리잡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남원시가 혁신행정을 위해 운영을 추진한 학습동아리의 2019년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남원시의 혁신행정 학습동아리는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의 학습역량과 문제해결 능력배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혁신행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7개의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건이 본선에 올라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2건을

선정하였으며, 상장과 총 1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꽃과 놀자' 동아리의 <정원의 발견>으로, 정원여행을 통해 우리 산과 들녘, 주변에 자생하는 풀꽃과 야생화 관목들을 이해하고, 마을정원과 같은 원터를 통해 생활밀착형 품목정원 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수상 디자인 남원'의 <이제는 공공서비스도 디자인이다> ▲장려상 '향초연구 동아리'의 <남원시에 적합한 약초 연구>, '정책연구회'의 <지역사회 갈등관리 방안>이 선정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기술인력자원 동원훈련

임실군은 비상대비지원관리법 및 2019년 행정안전부 인력동원계획에 따라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기술인력자원에 대한 동원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군사작전 지원과 정부기능 유지에 필요한 임실군 기술인력을 적시에 지정된 사용기관으로 신속히 동원하기 위한 절차를 숙달하고, 동원된 기술인력을 실제 작업에 투입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이번 소집되는 기술인력은 4시간 동안 훈련에 참여하며 훈련 순서는 응소자 확인, 간이신체검사, 입소식, 입무고지 및 현장체험 교육·훈련으로 이루어졌다.

기술인력자원은 20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술·자격 면허 소지자를 거주지 읍·면에서 평상시 관리하며(병력동원 대상자는 제외)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국가동원령이 발령되면 동원명령을 교부받은 대상자는 입무고지를 받은 사용기관(군부대, 관공서 등)으로 신속히 응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평소 훈련시에도 훈련에 불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훈련 대상자는 적극 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금암공원에 가족 생태공원 조성

남원시는 노암동의 금암공원에 야경이 아름다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최근 노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70여명 참석)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그동안 금암공원 조성사업 계획 및 실시절차 추진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추가 의견을 들 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금암공원은 노암동 566-1번지 일원 40,000㎡에 체육시설, 금수정, 소나무림, 빛나무림, 철쭉군락지 및 시립국악원이 자리잡고 있는 공원으로, 남원시는 지난 5월 금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절차 용역을 착수해 수차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금암공원 조성사업은 잔디광장, 벽천 폭포조성, 북카페 전망대를 조성하는 바깥마당이 마당과 공원윙글데크 산책로, 장미터널, 프로포즈 존, 갈대조형 등 조성하는 활력마당, 숲속놀이터, 숲사잇길, 전망테라스 등을 조성하는 숲속마당을 테마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 광학투 및 승사교에서 바라보는 금암공원 및 금수정 야경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내용과 오감만족 숲·함파우 유원지·옛다솜 이야기원과 금암공원을 연계하는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